

베트남산 요소 매월 1500톤 수입

정현을 익산시장,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와 베트남 현지서 요소 공급 양해각서 체결

익산시가 요소 공급량을 추가로 확보해 '요소수 대란' 재현을 막는다. 익산시와 전북 유일한 요소수 생산 업체 (유)아톤산업은 23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페트로베트남 비료회사 (PVCFCO)와 요소 수입을 위한 우선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출장 중인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베트남 최대 국영 비료회사인 PVCFCO는 매월 1500톤의 요소를 아톤산업에 공급하게 된다. 이어 아톤산업은 생산한 요소수를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있다. 이에 시와 아톤산업은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요소수를 생산·공급하고자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춰 왔다.

실제 시는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수 수출 통제 사태에 전국 처음으로 요소수 대란 대비 전담반(TF)을 가동했다. 지역 유일한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과 함께했다. 전담반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격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지역 공급망 구축안을 기획했다. 아톤산업은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에 도 익산시와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품귀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가격 안정화와 공급량 확보에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시는 요소수 대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역 29개 관매업소의 요소수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요소수를 익산뿐 아니라 도내 공급망까지 확보해 민간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다문화 선도도시' 익산시와 베트남은 돈독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익산시가 지역 결혼이민자 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기도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나서

군산시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로 인해 전통시장에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건물 노후 및 좁은 골목에 점포 밀집으로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화재예방과 안전점검을 위해 실시했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직접 점검에 나선 가운데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 시 관련부서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으로 신영시장(동신영길 56, 80개 점포)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점검은 소방 전기, 가스 시설, 위생 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위험물질 관리, 분점합 관리, 적정용량 콘센트 설치 여부, 배선관리, 가스차단기 및

경보기, 방화구획 및 통로 적치물 여부, 환기시설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축, 가스 설비에 대한 개선방안도 현장에서 함께 논의했다.

특히, 노후 소화기 비치, 소화전 및 통로 앞 물건 적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오염 말티랩 사용 등 고질적인 안전문제 관행에 대해서는 현장개선 조치하고 상인들과 직접 만나 안전문제 관행 근절 동참과 화재취급 주의를 당부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하고 많은 점포가 밀집돼 화재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의 안전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2024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 성료

군산시, 지역 현안 · 주요 사업... 시민들과 소통

군산시는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읍면동 신년대회를 시작으로 2024 갑진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회가 23일 월명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4 갑진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회는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올해 국회의원선거로 인해 제한사항이 있어 예년보다 빨리 일

정이 시작되었다.

또한 공명선거를 위해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선거 일정으로 인한 행사현장에서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진행에 철저를 기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4 갑진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신년대화에서 주민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격의 없는 소통으로 도로불편, 가로환경과 같은 각종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부터 이차전지·첨단소재 투자유치로 그간의 시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 저출산 지방소멸 대응까지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제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음식·식품 문화 확산... 26일까지 요리문화교실 대관 신청

시는 오는 28일까지 '요리문화교실' 상반기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요리문화교실은 익산역 앞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3층에 위치해 있고 조리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주방 5개와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있다. 신청 대상은 음식 교육 또는 의식

창업 교육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시민 등으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청년 등은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관을 원하는 시민과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위생과(869-5475)에 신청하

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리문화교실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익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이중선 익산시의원 발의

익산시의회 이 중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가 23일 제 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지원 △전지훈련 시설 운영 및 전국대회 홍보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의 체육발전 및 체류형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익산시가 스포츠 산업을 통한 활력이 넘쳐나는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익산시가 매년 30~40여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회 참가 인원만 3만~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명품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에서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해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매년 방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설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운영

익산시가 설 연휴 동안 가족 모임 등 집단 활동에 대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023~2024년 집중접종에는 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된 XBB 기반 단가 백신이 사용된다. 현재 우세종인 HK3과 세계적으로 증가세인 JN.1에도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신규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이전 집중접종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면 올해 3월 말까지 1회 접종 가능하다.

mRNA 기반 백신의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mRNA 백신 금기자를 위한 유전자재조합 합성형 백신인 노바백스 등에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년 전락작물 직불금 신청·접수

군산시는 전락작물 직불제를 2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락작물직불제는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쌀을 소비를 줄여 안정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하기 위해 2023년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논농업에 활용된 논지에서 전락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전락작물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락작물은 밀, 가루쌀, 콩, 하계조식료 등으로 기본형 공공직불금에 더해 추가로 지급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겨울철에 동계 식량작물 및 동계 조식료 재배 시 1ha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여름철에는 1ha당 옥수수 재배 시 100만 원, 두류·가루쌀 재배 시 200만 원, 하계 조식료 재배 시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 밀·동계 조식료, 여름철 두류·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